

“대선 3자 구도로 전개될 것 ... 야권 정권창출 가능성 70%”

야당 대표에 듣는다 ...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한미당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일보에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터 사드를 비롯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봤다.

인터뷰=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비례대표 5선을 하며 여야를 넘나들었던 노(老) 정치인은 노회하기보다는 명쾌했다. 정치적 부담이 있는 질문도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밝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50분 동안 진행된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당 내외의 반대 움직임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차기 대선 구도가 현재의 3당 구도에 기반한 3자 구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야권의 정권 창출 가능성도 7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더민주가 집권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 민심이 대선 국면에서 더민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드 배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돌이킬 수 없다.

▲한미 간에 합의하고 부지까지 선정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고 있어서 휴전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한미안보조약에 입각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 핵 개발 등의 위협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방어 목적으로 사드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는데 대응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북한 핵 상황에 따라 나중에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갖다놔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안보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서적으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국회 비준 또는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야권의 올바른 대응은.

▲그동안 야권에서는 반대야사를 피력해왔는데, 정부가 수용 안 하고 군사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합의)했기 때문에 야권에서 말은 반대할 수 있어도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 야권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반발이다. 너무 부담이 큰 것 아닌가.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러시아·중국의 극심한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흡했다. 앞으로도 외교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최근 수도이전을 말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87년 체제가 현재 구조다. 그런데 경제·사회·국제 여건 등이 다 변화됐고 현재 권력구조를 30년 동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평가는 아

니라고 본다. 변한 상황에서 나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은.

▲이번 선거 끝나고 보니 협치를 얘기하던데, 그러려면 내각제 형태의 권력구조가 되어야 한다.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국회의원, 대통령 임기도 걸려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300명 설득이 쉽지 않아 어렵다고 본다.

“

외교력 최대한 발휘해

사드 반발 중·러 설득해야

내각제 형태돼야 협치 가능

야권통합은 쉽지 않을 듯

더민주 집권 비전 제시편

호남 민심 돌아올 것

”

대통령이 나라 장래를 걱정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도하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차기 대선에 나오는 분이 개헌을 약속하고 취임 후 개헌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연합정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누가 양보하겠나. 그것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3자 구도로 야권의 집권이 가능할까.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자구도가 되더라도 후보를 제대로 선택하면(다른) 한쪽은 쪼그러진다.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중부권에서 승리해서 1당이 됐는데 옛날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을 끌어들이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나면 3자 구도가 돼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 등 야권만의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가.



▲그랬다면 지금처럼 분열 안 됐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정계개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가.

▲예견하기 힘들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도 생각해 봐야 한다. 여권에도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권력을 앞에 놓고 이익을 생각하다가 이리저리 될 수도 있다. 꼭 정계개편이 이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3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다. (야권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단일화가 되든, 한 사람이 포기를 하든, 정계개편이 되든 할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더민주 대선후보가 다 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형성된다면) 경선이 맥이 빠져서 효용성이 없어진다. 가급적이면 경선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면 대선주자로

서 재기할 수 있다고 보나.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렸다. 그분의 더민주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다. 결국,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손 전 대표의 야권통합 역할론도 나오고 있는데

▲야권통합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합치는 것인데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이 대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통합이란 불가능하다.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는가.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더민주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자고 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더민주가 집권 가능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대선 국면에서 더민주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 10년을 평가한다면.

▲역시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범 때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됐는데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저성장 높으로 빠졌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내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평가하나.

▲20~30점 정도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 대표를 상징하는 경제민주화를 설명한다면.

▲지금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과거의 성장패턴으로는 자본주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용적 경제 성장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의 룰을 자꾸 보완해야 하는데 그 보완 과정이 모두 경제민주화라고 보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호남 몫을 찾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호남이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의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집권세력이 나와야 한다. 그것은 꼭 호남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나라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

-호남의 미래를 위한 조건을 한다면.

▲호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지만 앞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의 산업벨트 지역은 공해에 찌든 지역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산업유치도 달라진다.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 같으면 호남과 같은 곳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너무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잘못하면 이회창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회창 전 대표가 1997년에 38만표 차로 대선에서 지고 다음 선거에서 조금만 하면 이긴다고 해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2%만 더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다. 후보를 오래 하면 신선한 맛이 떨어진다. 그런 것을 탈피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야권의 정권 창출 가능성이 몇%나 된다고 보나.

▲70% 이상은 될 것이다.

-한때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 역할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허허'하고 웃음)그분은 외교술수 가는 리더십이 있다. 자기가 한번 선택하면 거기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새정치를 내세웠는데 실체를 내세우지 않으면 새정치라고 하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선한 느낌에 쫓아가다가 나중에 실체가 없으면 기뻐하고 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평가한다면.

▲결국 성공 못한 정부다. 모든 정권이 그렇듯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 그런 측면에서 공로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약속했던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했어야 했다. 그러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를 한다. 결국, 양극화만 확산시키고 해결책을 못 내놓고서 끝난 정권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남동발전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을 이끌어갑니다.

세계 최초 발전소 냉각수를 활용한 심천모 해양 소수력 개발 (영흥화력에 확대 설치) 1MWp 태양광 발전소 영흥본부에 설치(삼천포, 영동, 여수, 분당본부에 확대 설치 운영) 국내 최대 국산풍력단지(46MW)건설 국내 최초 계통연계형 300kW급 연료전지 설치(2013년 3MW규모로 증설) 발전사 최초 계통연계형 태양광(100kW) 사업 불기러미 태양광(41.62MW), 미국 풍력 (120MW) 운영 관리

신재생에너지 비전 2025 수립 및 신규 개발 투자에 매진함으로써 2025년까지 총 발전량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OEN 한국남동발전
Clean & Smart Energy Leader